

## 우편함 독점에 대한 단상

이 종 탁\*

얼마 전 미국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라는 도시에서 우편물 도난사고가 연간 12~15건꼴로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 우편감시국이 최근 2년간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메일박스를 깨고 우편물을 가져가는 방식의 범죄가 그같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보고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화살이 우체국으로 향하지 않을까. 개인의 귀중한 우편물이 없어졌으니 우체국과 집배원이 책임지라는 식의 비난 말이다. 미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우체국을 총괄하는 기관, 즉 우정청(USPS)에도 우편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다소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산 안토니오 사고와 관련해 USPS가 내놓은 반응은 국민에 대한 당부였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우편물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수거해 달라,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집배원에 일시 배달 중단을 요청해 달라, 잠깐 비울 때는 이웃에 알려 수거토록 해 달라 등등. 한마디로 “우편물 보안에 개개인이 신경 써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우편함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딱 둘이다. 집배원과 집 주인이다. 집배원은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고, 주인은 그 우편물을 꺼내간다. 이 둘 외에는 누구도 우편함에 뭔가를 넣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Fedex나 UPS 같은 민간사업자는 우편함을 이용할 수 없다. 송달하는 물건이 아무리 작고 간단하다 해도 반드시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

\* 신한대 언론학과 교수, jtlee1024@naver.com

오길 기다렸다가 직접 전달해야 한다. 그게 여의치 않아 현관문 앞에 놓아두더라도 우편함에 넣을 수는 없다. 이걸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 우편함에 관한 USPS의 독점(mailbox monopoly)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다.

우편 독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우편함 독점까지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독점이라면 일단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국가 미국에서 다른 곳에는 없는 우편함 독점을 시행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물론 USPS 마음대로 독점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민간사업자들은 이 법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한때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대법원은 USPS 손을 들어줬다. 여느 독점과 달리 우편함 독점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우리는 어떤가. 우편함의 우체국 독점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안전보장도 안 돼 있다. 아파트 우편함에 보면 구청에서 날아온 주차위반범칙금 고지서와 신장개업을 알리는 치킨집 광고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다. 관공서에서 온 우편물 겉봉에는 나의 이름과 주소 등 정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치킨집 광고물을 우편함에 집어넣는 알바생이 마음만 먹는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다. 더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우편함에 꽂혀있는 우편물을 빼들릴 수도 있다. 산 안토니오의 우편함은 잠금장치라도 돼 있어 뭔가 도구를 이용해 깨뜨린 다음에야 우편물을 빼내갈 수 있었지만 한국의 우편함에는 그런 장벽이 없다.

자세히 보면 우리 우편함에도 열쇠를 집어넣는 틈새가 있다. 아파트 입주할 때 받은 열쇠뭉치 중에 우편함이라 쓰인 열쇠를 이 틈새로 넣으면 잠겼다 열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편함은 하루 24시간 일 년 열 두 달 늘 열려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 주인은 오다가다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으면 꺼내 볼 뿐이다. 아무나 넣을 수 있고, 아무나 빼내 가도 좀처럼 들키지 않는 것, 그게 한국의 우편함이다. 우편함 독점과 보안이 법과 제도로 굳어져 있는 미국 산 안토니오에서도 연간 15건 가량 우편물 도난사고가 일어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정말이지 기적같은 일이다.

이런 기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로 미루어 볼 때 우편함 보안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다. 우편함에서 개인정

보가 새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우편함에도 접근과 개방의 코드체계가 있어야 한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하고 누구나 열어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같은 우체국의 우편함 독점이 필요하다면 그것이라도 도입을 마다해야 할 이유가 없다.